

□ 2021.6.30.(수) 08:20:57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66 本土现有确诊	4577 现有确诊②	118498 累计确诊	494 无症状感染者	6583 境外输入	5489 累计死亡
---------------------	----------------------	-----------------------	----------------------	---------------------	---------------------

○ 6월 29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9건, 모두 해외유입(푸젠 2건, 후베이 2건, 윈난 2건, 후난 1건, 광둥 1건, 쓰촨 1건)

□ 2021.6.21.(월)~6.30.(수)

○ 中 신규 확진자 9명 증가, 모두 해외유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29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9명(모두 해외유입), 신규 퇴원 환자가 13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455명(해외유입 393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780(해외유입 6588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6689명(해외유입 6195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921명(퇴원 환자 1만 1628명, 사망자 211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4명(퇴원 환자 51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만 4748명(퇴원 환자 1만 86명, 사망자 643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6.30.)

○ 파우치 “델타 변이, 미국 방역의 가장 큰 위협”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2일(현지시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미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파우치 소장은 당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의심할 여지없이 전염성이 강하며, 관련 질환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다만, 우리의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 효과적인 것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미국의 신규 코로나 19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지난 8일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해당 수치가 6%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는 현재 92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 수미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지난주 “델타 변이가 전 세계 감염확산을 일으키는 주된 변이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22일, “현재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젊은층이 되도록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CD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미국의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인구수는 1.78억 명으로 미국 총 인구수의 53.5%, 2차 접종 완료 인구수는 1.5억 명으로 미국 총 인구수의 45.3%를 차지했다.

한편 자이언츠 조정관은 22일, “미국은 오는 7월4일까지 70%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中国网, 2021.6.25.)